



| | | | | |
|--|--------|--|--|---|
|  해양수산부 | | 보 도 자 료 | |  |
| | | 배포 일시 | 2018. 7. 10.(화) 총 6매(본문 2, 참고 4) | |
| 담당 부서 | 해양생태과 | 담 당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명노현, 사무관 안준영 • ☎ 044)200-5310, 5315 | |
| | 해양환경공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태팀장 고병설, 대리 배진호 • ☎ 02)3498-7151, 7156 | |
| 보 도 일 시 | | 2018년 7월 11일(수)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 갯게 살리기 나선다

- 국내 최초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500마리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방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과 함께 국내 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보호대상 해양생물 ‘갯게*’ 500마리를 7월 11일(수)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대교지구 바닷가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종으로 서·남해 및 제주도 연안 기수역의 도랑이나 갯벌 상부에 구멍을 파고 서식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갯게는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갯게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집단인 성체 2쌍을 제주에서 포획하여 인공 증식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군산대학교 연구팀(교수 김형섭)에 갯게 인공증식 연구용역*을 위탁하였으며, 올해 5월 국내 최초로 갯게의 인공 증식에 성공하여 어린 갯게 500여 마리를 확보하였다.

* ('17)서식 환경 조사·성체 확보 등→('18)산란 및 유생 사육, 어린게 방류 등(연구비 1.4억)

갯게는 담수가 유입되는 갯벌의 조간대 상부나 하구 습지 등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한 종이나 해안가 개발 등에 따라 서식지가 훼손되어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갯게는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갯게가 방류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월차갯벌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갯게 20여 마리가 발견되는 등 서식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변 콘크리트 농로와 페타이어 옹벽 등이 갯게의 서식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 콘크리트 농로와 페타이어 옹벽을 자연석으로 대체하고 갯잔디를 이식하는 등 갯게가 서식처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새롭게 조성한 갯게 서식지에 인공 증식한 어린 갯게를 방류함으로써 갯게의 자연 개체수를 늘림과 동시에 서식지 복원 효과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방류 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의 생존과 자연 개체수 회복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월차갯벌 외에 갯게 서식이 확인되고 서식조건을 만족하는 인근 갯벌 두 곳에도 어린 갯게를 분산 방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식지 내 개체수 과밀 현상과 종 간 경쟁을 완화시켜 초기 폐사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개체수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갯게 방류는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의 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관계 부처와 산하기관이 모범적으로 협업한 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 “해양수산부의 인공 증식 기술을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갯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 공원을 대표하는 해양생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1

갯게 방류 예정지역

□ 방류 예정지 (3개소)

- 갯게 성체 발견으로 서식요건 충족이 예상되며, 인공증식 개체 분산방류를 통해 종내 경쟁을 완화하고, 사망률을 저감할 예정
-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월차갯벌) : 콘크리트 농로, 페타이어 옹벽 제거와 갯게 은신처(자연석) 마련 등 갯게 서식지 복원지역(17.10월, 국립공원관리공단)



①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 갯게 20여마리 서식 확인
- 갯게 서식지 복원지



②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 갯게 서식 확인



③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 갯게 서식 확인

□ 외형적 특성

- 갑각 길이는 약 40mm, 폭은 약 50mm이고, 갑각은 양쪽 가장자리가 볼록한 사각형이며, 등면에 깊은 홈이 세로로 가운데까지 나 있음
- 집게다리는 크고 강하게 생겼으며, 수컷의 집게다리가 암컷의 집게 다리보다 큼
- 몸은 전반적으로 보랏빛을 띠나 서식지에 따라 다소 차이발생

□ 분포지역

- 세계적으로 희귀종으로, 대만, 중국, 일본의 극동 아시아에 분포
- 우리나라에서는 서해, 남해 및 제주 연안의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

□ 국내 서식지 특성

-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의 하구 및 조간대 상부의 초지대나 돌무더기, 도랑이나 습지 등에 구멍을 파고 서식
- 하구 및 연안지역의 매립 및 오염 등 인위적인 간섭으로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소수가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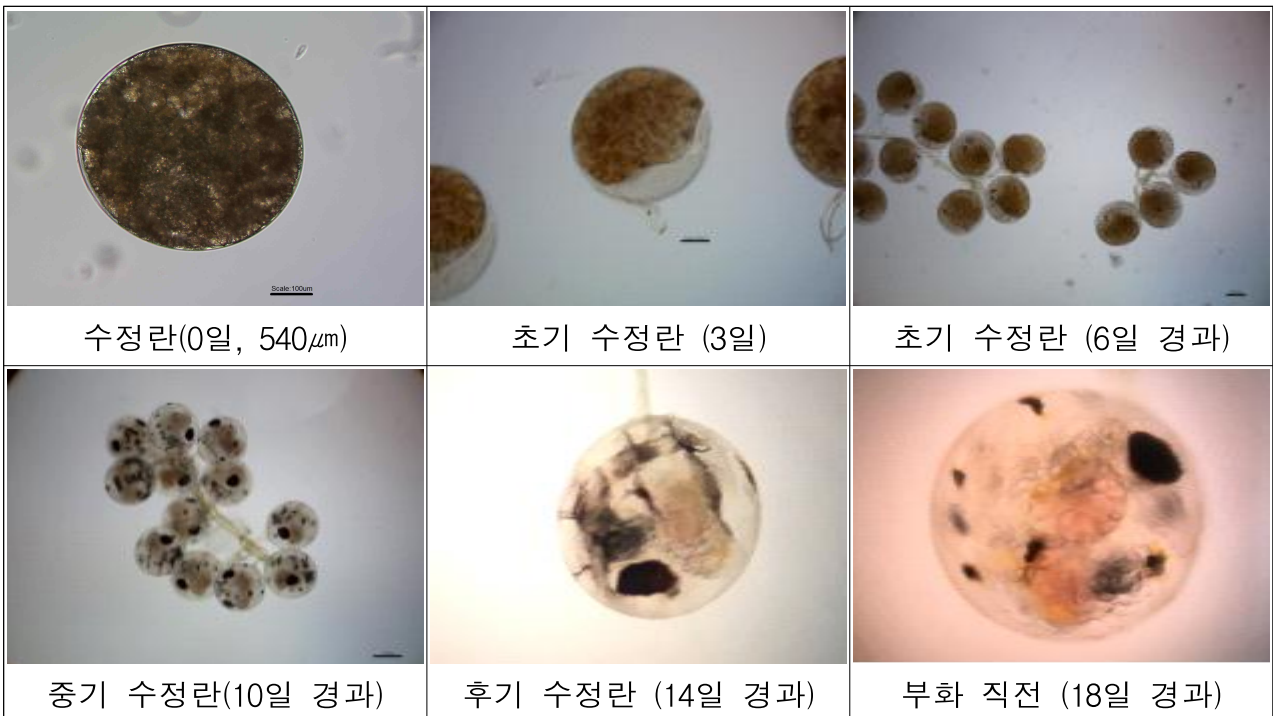


갯게의 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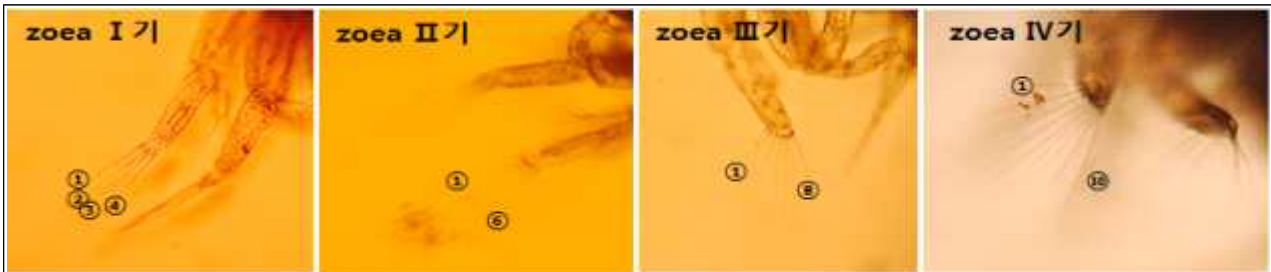
갯게의 배면

① 부유유생 사육

- 부화한 조에아 유생을 200L 수조에서 수용하고, 수온 25℃, 염분 30 psu로 조절한 후 산소발생기를 이용해 산소와 공기를 충분히 공급
 - 조에아 모든 단계까지는 담수산 농축클로렐라로 키운 윤충류(*Brachionus plicatilis*) 공급
 - 조에아 3기부터 메갈로파기까지는 갯 부화한 알테미아(*Artemia nauplii*)를 매일 일정량 공급 및 모든 기간 동안 소량의 배합사료 병행 공급
 - 메갈로파기 단계에서 공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차광막 설치
 - 조에아 유생은 12일 동안 4기까지 탈피하였고, 7일 간의 메갈로파기 유생을 거친 후 어린게로 변태
- * 갯게의 발달과정 : 부화 → 조에아기(부유생활, 새우와 비슷한 모양) → 메갈로파기(부유 생활에서 저서생활로 옮기는 과도기, 집게발 생성) → 어린게 → 성체



<수정란 및 부유유생의 발달과정>



조에아기 발달단계 (탈피 시 털다리(악각) 증가)



조에아(Zoea)

메갈로파(Megalopa)

어린게(Juvenile)

<부유유생의 발달단계>

② 어린게 사육

- 약 3회 탈피한 어린게는 약 300L 직사각형수조 2개에 각각 수용하고, 수온 22℃, 염분 10psu에서 매일 배합사료와 조갯살 공급
 - 공식 억제를 위해 바닥에는 작은 돌을 넣고, 수중에는 차광막을 넣어 은신처 제공
 - 현재 갑장 약 10mm의 크기로 약 500 개체 이상 사육('18.6.25.기준)



어린게 사육수조



어린게(500여 마리)



사육 중인 어린게



어린게의 탈피